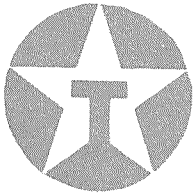


텍사코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1. 社運걸린 펜즈오일 소송문제

1985년 11월 9일 美國 텍사스주 하리스카운티지방재판소는 텍사코社에게 150억3천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펜즈오일과 텍사코間의 소송사건은 펜즈오일과 게티오일 兩社간에 성립되었던 펜즈오일의 게티오일株式취득계약에 텍사코가 부당개입하여 계약을 파기시킨데서 비롯되었다. 이 소송사건에서 美國 民事史上 유례없는 거액의 손해배상지불 판결로 말미암아 최근 저조한 수익력을 보이고 있는 텍사코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지금까지 텍사코는 메이저중 가장 신중하고 보수적인 경영색채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80년 모리스 F. 그랜빌의 뒤를 이은 존 K. 맥킨리 신임회장은 담보상태의 同社의 경영을 일신하기 위하여 1984년에 101억달러의 거액을 투자하여 게티오일을 買收하려는 도박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그후 原油가격의 급락과 심각한 펜즈오일소송문제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맥킨리회장이 추진한 적극노선은 그 결과가 의도한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1987년 1월 1일 제임스 W. 키니어가 신임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로 취임하여 경영체제의 재구축을 시도하게 되었다.

2. 텍사코의 성장과정

텍사코는 텍사스를 발상지로 해서 스탠다드오일그룹과 대항하며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여 메이저의 일원이 된 기업이다. 텍사코의 직계 前身은 1902년에 설립된 The Texas Co.으로서 同社는 1901년 Spindletop Hill의 대분출로 일기 시작한 텍사스의 석유개발붐당시에 설립된 The Texas Fuel Co.와 The Producer Oil Co.의 합병에 의해 탄생되었다.

텍사코는 당시 스탠다드오일의 독점적 위치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전개하여 1908년에는 西部 5개州를 제외한 全 美國으로 판매영역을 확대하였다. 또한 해외에도 눈을 돌려 1905년에는 유럽에 판매거점을 구축하였다. 당시 주요 수요처는 가정용 램프, 보일러 및 증기기관차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제1차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휘발유수요의 급증에 힘입어 1920년대 후반에는

텍사코의 주요 經營指標

| | 單位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
| 總 資 產 | 백만달러 | 27,489 | 27,114 | 27,199 | 37,744 | 37,703 |
| 매 출 액 | | 57,628 | 46,986 | 40,068 | 47,334 | 46,297 |
| 純 利 益 | | 2,310 | 1,281 | 1,233 | (1,071)306* | 1,233 |
| 資本·探鑛·開發支出 | | 3,711 | 4,216 | 3,833 | 3,913 | 2,824 |
| 自 己 資 本 | | 13,752 | 14,226 | 14,726 | 13,107 | 13,628 |
| 長 期 負 債 | | 2,112 | 1,731 | 2,098 | 10,489 | 6,908 |
| 株當 純利益 | 달 러 | 6.02 | 3.44 | 3.48 | 4.22 | 5.11 |
| 製品販賣 1 배럴당利益 | | 2.38 | 1.49 | 1.49 | 1.08 | 1.27 |
| 株 價 | | 49.13~31.50 | 34.88~26.00 | 39.13~30.50 | 48.38~31.50 | 40.25~27.00 |
| 自己資本純利益率 | % | 16.8 | 9.0 | 8.4 | 2.3 | 9.0 |
| 매출액純利益率 | | 4.0 | 2.7 | 3.1 | 2.3 | 2.7 |
| 自己資本比率 | | 50.0 | 52.5 | 54.1 | 34.7 | 36.2 |
| 長期負債 / 資本比率 | | 13.3 | 10.9 | 12.5 | 44.5 | 33.6 |
| 평균종업원수 | 천 명 | 66.7 | 60.3 | 54.7 | 68.1 | 54.5 |

註：*1984년의 '()' 내는 게티오일 買取에 따른 特別損金控除前

全美國에 걸친 판매망을 완성하였다. 1920년대 이후에는 해외석유자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등에, 그리고 193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대한 이권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적인 일관조업회사로서 활약을 개시하였다.

1936년에는 메이저의 다른 일원인 소칼(現 세브론)과의 합작사업에 착수하여, 兩社의 공동출자에 의해 칼텍스를 설립, 유럽, 아시아지역에서의 原油판매와 하류부문의 강화를 꾀했다. 당시 협정에 따라 텍사코는 소칼이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등의 권익의 50%를 획득하고, 대가로서 현금 1,100만달러와 東半球에서 텍사코가 갖고 있는 하류부문자산의 50%를 소칼에 양도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소칼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아람코이다. (그후 아람코는 1947년에 엑슨과 모빌이 참가하여 현재의 4社체제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전략에 따라 텍사코는 메이저로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며, 판매력, 수익력에 있어 오랫동안 엑슨에 이어 메이저중 제2위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태는 급변하여 2차례에 걸친 석유위기와 산유국의 지위강화에 따라 텍사코의 수익구조는 일반하게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등의 국유화정책에 따라 텍사코의 보유자원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1차석유위기 직전인 1973년의 보유확인매장량은 中東지역의 지분원유 193

억배럴을 포함하여 269억배럴이었으나, 1974년에는 171억배럴로 감소하였으며, 1983년未에는 21억4천만배럴에 불과하였다. 그 결과 상류부문의 투자를 적극화한 엑슨의 보유확인매장량 67억2천만배럴에 비해 原油조달능력면에서 크게 뒤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텍사코는 原油조달 코스트의 상승과 제품판매에서의 세어감소로 수익성이 저하되었으며, 하류부문의 설비의 비효율성까지 겹쳐 메이저간의 경쟁력에서 크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장기간에 걸친 경쟁력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에 들어와 텍사코는 여러형태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상류부문의 강화, 비채산판매지역에서의 철수, 비효율적인 소규모 정유공장의 통폐합, 인원감축, 경영기구의 개혁등 합리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1984년 1월의 게티오일買收는 최대의 의사결정으로 꼽혀진다. 게티오일의 매수에 의해 텍사코의 확인매장량은 1985년未에 33억3천만배럴(83년말 대비 49%增)로 비약적인 증가를 보여 原油조달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다. 또한 하류부문에 있어 舊게티오일계의 판매부문, 수송망, 精油工場의 통폐합등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이 買收劇은 텍사코에 두개의 큰 부담을 남겼다. 그중 하나는 게티오일의 매수소요자금의 외부조

달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이다. 텍사코는 매수를 위해 120억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장기부채는 1983년 말의 21억달러에서 1984년말에는 150억달러로 증가하여 단기부채 증가분을 포함하여 약 90억달러의 부채증가를 초래하였다. 그결과 자기자본 對比 장기부채비율이 1983년말의 14.3%에서 1984년말에는 80.0%로 급증하였다.

게티오일 매수에 따른 추가매장량의 코스트는 배럴당 약 5달러로 試算되어 당시 율街에서 화제가 될 정도로 낮았는데, 그후 原油가격하락에 따라 상류부문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매수채무의 금리부담을 안고 있는 텍사코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재무구조 악화에 대처하여 텍사코는 매수이후 게티오일의 不要部門을 감축하고, 自社 정유공장등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日本에 있어서 게티오일의 제휴선이던 三菱石油의 매각도 이러한 합리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 1985년말의 장기부채는 69억달러로 감소하여 장기부채비율이 51%로 낮아졌다.

3. 펜즈오일에 의한 소송과 更生法の 신청

텍사코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부담은 펜즈오일에 의한 소송제기문제이다. 펜즈오일의 주장에 의하면 同社는 텍사코의 매수발표 이전에 게티오일의 주식 25%를 1株당 100달러에 매수하기로 게티오일 取締役會의 승인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1984년 1월 4일 게티오일과의 합병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2일후인 1월 6일 텍사코는 게티오일의 주식을 株당 125달러로 매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펜즈오일은 1월 10일 텍사코의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델라웨어주 지방재판소에 提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코가 합병절차를 진행시키고, 더구나 85년 2월에 同재판소가 펜즈오일의 提訴를 却下함으로써 사실상 兩社의 합병은 확정되었다. 그러나 펜즈오일은 이에 불복하여 텍사스주 지방재판소에 텍사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同年 11월 同재판소는 텍사코에게 펜즈오일의 게티오일 합병무산에 따른 기대상실이익 105억3천만달러와 이자를 포함하여 111억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판결하였다. 텍사스주法에서는 항소하기 위해서는 판결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공탁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 한때는 텍사코의 파산

소문이 나돌기도 하였다.

텍사코는 텍사스주 고등재판소와 뉴욕연방지방재판소에 항소하였으며, 뉴욕연방지방재판소는 보증금의 대폭 감액을 인정하여 텍사코는 최악의 사태를 면한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1987년 3월 2일 텍사스주 고등재판소는 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여 비상액을 85억달러로 인정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103억7천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텍사코에 명령하여 텍사코는 다시 곤경에 빠졌다. 더욱이 1987년 4월 6일 뉴욕연방최고재판소는 同연방지방재판소의 판결을 번복하여 공탁금문제에 관해 연방재판소는 텍사스주재판소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 사실상 州재판소의 공탁금지불명령을 지지하였다. 다시 궁지에 몰린 텍사코는 1987년 4월 12일 연방파산법 제11조에 의한 회사갱생법 수속을 신청하였다. 텍사코의 更生수속신청은 어느정도 사전에 예상되었던 것이라고는 하지만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美國 3위의 석유메이저 倒産」이라고 보도되었던 이 倒産劇도 실제로는 펜즈오일과의 화해금 교섭을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텍사코의 法廷전술의 색채가 강하다. 이에 따라 텍사코의 채무지불은 법정관리하에 놓여 실질적인 공탁금 지불연기가 가능해졌다. 또한 會社更生法에 따른 파산의 경우 채권의 우선순위는 제1차로 勞動채권, 제2차로 公的기관의 채권, 그리고 다음 순위로 은행채권, 株主에 대한 보증이고, 배상금지불은 우선순위가 매우 낮다. 이 때문에 펜즈오일에 대하여 早期和解에 따른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실제로 텍사코의 株價는 파산법의 신청 직후 약 4달러 하락하였으나, 2일후에는 파산법 신청전의 수준(31달러대)을 거의 회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텍사코는 신규 자금조달의 길이 봉쇄되는 등 사업활동상의 제약도 많이 받고 있으며, 펜즈오일과의 화해교섭이 초기에 타결되지 않으면 텍사코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것에 변함이 없다.

4. 눈에 띄는 수익력저하

세계石油企業랭킹을 보면 1985년 텍사코의 매출액과 총자산액은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하였으나, 자기자본

텍사코의 事業收益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
| 石油·天然가스計 | 2,141 | 1,374 | 1,312 | 1,567 | 1,805 |
| 探鑛·生産 | 2,055 | 1,548 | 1,514 | 1,994 | 1,586 |
| 精製·販賣 | 46 | ▲56 | ▲30 | ▲309 | 276 |
| 海上運輸 | 40 | ▲118 | ▲172 | ▲118 | ▲57 |
| 石油化學 | 81 | 4 | ▲23 | 25 | 5 |
| 기타非石油부문 | 29 | 37 | 56 | 28 | 26 |
| 환어음換算損益 | 57 | 62 | 99 | 89 | 28 |
| 共通費·非營業項目 | 2 | ▲196 | ▲211 | ▲638 | ▲631 |
| 特別損益 | - | - | - | ▲765 | - |
| 純 利 益 | 2,310 | 1,281 | 1,233 | 306 | 1,233 |

이익률은 6대메이저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同社의 수익률은 1980년 19.7%를 피크로 그후 계속 낮아져, 게티오일 매수후인 1985년에는 9.0%로 首位인 엑슨의 16.8%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손실 및 금융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1981년의 23억달러에서 1983년에는 14억달러로 감소하고, 1985년에는 다시 19억달러로 증가하였다. 舊게티오일의 각부문과의 통폐합이 진행되어 합리화가 진전될 경우, 총자산에 대한 이익률도 향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텍사코는 게티오일의 매수시에 120억달러에 달하는 매수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하였다. 현재 同社는 舊게티오일의 不良資産 매각등에 의해 재무구조개선에 힘써, 1984년, 130억달러로 팽창한 외부부채가 1985년말에는 96억달러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채는 여전히 고수준에 있어 거액의 지불금리(85년 11억4천만달러)는 同社의 수익성을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게티오일의 매수후 수익구조면에서 나타난 또다른 큰 변화는 收益의 지역적 분포의 변화이다. 텍사코의 국내 석유부문은 油田의 減耗손실이 높고, 하류부문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 同社의 국내 對 해외의 수익비율은 1983년에 1對 2.6이었으나 매수후 국내에서의 수익기반이 강화되어 그 비율이 거의 비슷해지게 되었다.

5. 探鑛·개발투자에 적극자세

1985년 텍사코의 총투자액은 26억7천만달러로 게티오일 매수전에 비해 약 25% 감소를 보였다. 또한 原油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한 1986년에는 他메이저와 같이 약 34%의 큰폭의 투자감소를 보였다. 同社의 内部留保(세후순이익+감가상각)는 1983년 29억달러로, 84년 31억달러, 85년 42억달러로 상류부문의 투자액은 내부유보의 각각 61%, 58%, 36%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탐광·개발투자를 지역별로 보면 美國內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0%가 해외투자이다.

부문별 수익성을 보면, 상류부문에의 의존이 매우 높고, 하류부문, 탱커부문, 화학부문을 과거 수년동안 純益을 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1985년에 하류부문이 黑字로 반전하여 약 3억달러의 이익을 계상하였다. 1986년에는 原油가격이 폭락하여 상류부문의 이익은 전년대비 80.7% 감소하였으나, 하류부문의 수익이 약 3배로 급증하여 총수익은 약 41.2%의 감소에 그칠 수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 이후 산유국의 자원국유화정책에 따라 텍사코는 中東 및 南美諸國에서 거대한 利權을 상실하였으며, 국내 油田의 減耗도 심하였기 때문에 1980년대에 들어와 原油생산량은 저하일로에 있었다. 제1차석유위기 직전인 1973년에 269억배럴에 달하였던 原油확인매장량은 제2차석유위기 직전의 1978년 47억배럴로 급감하였으며, 그후 게티오일 매수전의 1983년에는 21억배럴로 더욱 감소하였다. 美國內의 油田도 이동안 심한 減耗를 보였으며, 1978년에 19억5천

텍사코의 부문별 投資推移

(단위 : 백만달러, %)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
| 總 投 資 額 | 3,166 | 3,768 | 3,579 | 3,744 | 2,670 |
| 〈부문별구성비〉 | | | | | |
| 石油·가스부문計 | 90.8 | 92.9 | 96.5 | 94.0 | 96.7 |
| 探鑛·生産 | 50.2 | 50.4 | 49.4 | 48.6 | 57.4 |
| 美國 | | | | | |
| 기타 | 19.0 | 17.7 | 16.7 | 19.0 | 21.3 |
| 精製·販賣 | 20.0 | 24.6 | 30.3 | 26.3 | 18.0 |
| 海上輸送 | 1.6 | 0.2 | 0.1 | 0.1 | 1.0 |
| 化 學 | 2.2 | 1.8 | 1.3 | 0.9 | 1.2 |
| 기 他 | 7.0 | 5.3 | 2.2 | 5.1 | 2.1 |

만배럴이던 原油확인매장량은 1983년에 9억7천만배럴로 반감하였다. 따라서 同社의 原油생산량도 현저하게 저하하여 1979년의 348만B/D에서 1983년에는 149만B/D로 감소하여 同社의 원유처리량(171만B/D)에도 미치지 못하는 産油量을 기록하였다. 이때문에 텍사코는 現物시장을 통한 原油조달이 불가피하였으며, 하류부문의 수익성도 악화되었다.

이처럼 약체화된 상류부문을 재건하고, 상·하류부문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1980년대에 들어와 주로 美國內에서의 探鑽·開發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보유자원의 감소추세를 만회하기 위해 1984년 게티오일의 매수에 나서게 된 것이다. 게티오일은 美國內에 많은 油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同社의 매수후 텍사코의 美國內에 있어서 보유매장량은 倍增하여 1984년말에는 18억8천만 배럴로서 1978년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하였다. 또한 해외 보유매장량을 합한 전체 보유매장량은 35억5천만 배럴로서 게티오일 매수전에 비해 66%의 증가를 보였다.

이에따라 텍사코의 보유자원의 53%가 美國內에 분포되어 있으며, 국내의 상류부문은 크게 강화되었다. 1985년 기준으로 텍사코의 보유자원의 지역별 분포는 美國 53.1%, 캐나다 9.3%, 中東·아프리카·極東이 16.0%, 南美 6.6%, 歐洲 5.7%이다. 또한 原油생산량 분포는 美國內가 46.2%, 캐나다 6.7%, 中東 16.2%, 極東·아프리카가 10.0%로 되어 있다.

6. 下流部門의 대폭적인 통폐합

제2차석유위기 이후의 석유수요감소와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텍사코는 다른 메이저와 같이 하류부문의 합리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텍사코는 전부터 하류부문의 합리화 및 근대화과정에서 뒤떨어져 있어 하류부문의 강화가 지상과제였으며, 게티오일 매수후에는 각부문의 통폐합의 필요성도 대두되어 최근 큰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 보유하고 있던 30개의 정유공장중 13개소를 삭감하는 동시에, 重質油분해, 접촉분해장치등이 2차설비 증설과 정유시설의 고도화, 근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텍사코는 1980~1985년 사이에 약 40억달러를 하류부문의 효율화에 투자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輕質製品의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수익성 제

텍사코의 操業實績

|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
| 原油매장량 (백만배럴) | 2,118 | 1,943 | 2,140 | 3,554 | 3,333 |
| 原油생산량 (천B/D) | 1,036 | 907 | 927 | 1,183 | 1,180 |
| 原油처리량 (천B/D) | 2,211 | 1,795 | 1,708 | 2,025 | 1,848 |
| 石油製品판매량 (천B/D) | 2,656 | 2,354 | 2,274 | 2,725 | 2,663 |
| 天然가스매장량 (십억입방피트) | 10,168 | 9,467 | 8,704 | 9,757 | 8,869 |
| 天然가스생산량 (백만입방피트/日) | 2,405 | 2,140 | 1,855 | 2,764 | 2,352 |

고를 꺾고 있다.

이러한 합리화 노력의 결과, 同社의 原油처리능력은 1979년말의 324만B/D에서 1985년말에는 224만B/D로 약 31%로 축소되어 83년의 71%에서 85년에는 83%로 상승하였다. 또한 非採算지역으로부터 철수를 단행하여 美國內 5개州와 일부 歐洲지역에서의 판매활동은 중지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세계전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 주유기는 피크시의 약 3분의2까지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시스템 2000」이라고 불리는 주유소근대화작전을 전개하여, 주유소의 디자인을 일신하고, 便宜店의 병설에 의한 대형화등의 마케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美國內에 500개소가 있는 「시스템 2000」의 주유소의 월평균판매량은 15만5천갤론으로서 全산업평균의 약 3배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製品판매량은 1981년의 266만B/D에서 1983년에는 227만B/D로 감소하였으나, 게티오일 매수후의 1985년에는 266만B/D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휘발유판매량은 1983~1985년에 25.3% 증가하고 있어 게티오일 매수를 포함한 하류부문의 수익강화노력은 일단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7. 사업다각화 전략

텍사코는 사업의 다각화전략면에서는 다른 메이저에 비교할 때 매우 보수적인 노선을 걷고 있어, 化學, 대체에너지개발등 외에 非石油관련사업에는 내세를 만한 것

이 없다. 1984년에 매수한 게티오일은 금속광업, 석탄, 핵연료, 농업, 부동산부문등 여러 다각화부문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게티오일의 매수자금조달을 위해 이부문들을 모두 매각하여 본래 石油에너지로의 집중화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化學부문은 1982년 이후 세계적인 화학제품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매우 악화되어 1973년에 적자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同부문에 있어서 연료소비효율의 향

상, 高부가가치상품에의 주력등과 같은 수익개선노력에 의해 1985년에는 약간의 흑자를 시현하였다.

石油대체에너지의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石炭가스화기술의 개발에 착수하여 최근에는 同社의 기술을 캘리포니아州의 發電所플랜트에 적용하는 외에 1985년에는 中國의 鐵鋼플랜트에 대한 기술공여협정에 조인하였다. <다음號에는 BP>

□ 海外短信 □

88年 世界の 試錐活動 전망

OGJ誌(1.25)는 88年の 美國 시추산업활동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즉,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強勢를 유지하고 原油價가 안정을 유지한다면'이라는 條件下에 88年の 試錐活動은 ;

- 활동리그 數는 작년평균 936基에서 15% 상승한 평균 1080基
- 試錐井數는 작년 35,744個井에서 15.5% 상승한 41,300個井
- 探查試錐는 작년보다 10% 증가한 약 5,000個井
- 굴착 총연장은 작년보다 20% 증가한 196百萬ft 井當 평균 심도는 4,743ft
- 주요 營業權者들의 시추계획은 前年보다 23% 증가한 8,650個井
- 캐나다의 경우 油價 U\$18/bbl 수준에서 유지되면 試錐는 전년보다 16% 증가가 예상되나 U\$15/bbl에서는 87年보다 下廻展望

한편 北美이외 지역의 리그활동 전망도 同誌는 Baker Hughes社, Salomon Brothers社, Spears and Associates 社 등의 전망을 引用 報道하였는데 평균

적으로 5~7% 증가된 수준으로 業界는 예상하고 있으며 Spears社는 92년에 세계활동리그(北美除外)는 1,461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世界 各地域의 활동리그 전망이다.

- 南美的 경우 Salomon社는 작년보다 10기 증가한 345기로 豫想하고 Spears社는 1% 증가한 水準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增加하고 브라질은 下落할 것으로 展望
- 유럽地域은 Salomon社는 작년보다 10% 증가한 160기로 豫想하고 Spears社는 9%增加 전망. 북해의 境遇는 15% 增加 豫想
- 아프리카는 Spears社는 1% 增加豫想(이집트, 자이레는 減少 가능, 나이지리아는 增加). Salomon 社는 작년 93기에서 올해 100기로 展望
- 中東地域은 80年代 최저수준인 작년의 150기에서 올해는 7% 增加 豫想
- 太平洋과 아시아地域은 작년 3% 增加에서 올해는 7%로 활동리그의 數가 增加 豫想